

새싹 불자를 키웁시다

조계종 포교원 ·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보편적인 인간 본성 희극적 묘사

우리가 꼭꼭 씹어 먹기

'화수분'이란 제목의 우리 소설을 읽어보았나요? 전영택의 단편소설이요. 가난에서 소재를 얻어 비극적인 삶을 이야기했는데도 현실비판이나 저항보다는 화수분을 읽는 사람에게 따뜻한 가족 간의 사랑을 느끼게 하죠. 그럼 그 낱말의 뜻부터 알아볼까요? 문학작품을 읽다보면 우리말들을 많이 접할 수 있어요.

화수분 : 재물이 자꾸 생겨서 아무리 써도 줄지 않음을 이르는 말.

가쁘다 : 몹시 숨이 차다. 힘에 겹다. 폐 한쪽을 들이낸 소령은 침대에서 내려서는 것만으로도 숨이 가빠서 네댓 번은 쉬어야 된다. (홍성원, 육이오)

가시눈 : 날카롭게 쏘아보는 눈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내 말이 비위에 거슬렸는지 그는 가시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갈피 : 1.결집거나 포개 물건의 하나하나의 사이. 또는 그틈. 십칠팔 년 전의 일이 노트 갈피 속에 숨어 있다가 되살아났다. (황순원, 움직이는 성) 2.일이나 사물의 갈래가 구별되는 어를. 이 사람에게 도대체 어떻게 응대를 해야 하는지 갈피가 안 잡혔다. (이호철, 문)

안명옥(시인 · 고령고 문예창작반 강사)

논술의 자신감 이 책은 꼭 읽어야 해

세르반테스작 '돈키호테'

우리가 사는 세상에 돈키호테를 닮은 사람이 많았다면 어떻게 생각하며 읽어보시면 더 재미가 있고 의미 있는 독서가 될 것입니다.

스페인의 라만차 어느 마을에 사는 시골 신사가 밤낮으로 기사 이야기만을 탐독한다. 그는 마침내 이상을 잃게 되어 기사 이야기의 주인공이나 된 것처럼, 이 세상의 부정을 바로잡고 약자를 돕기 위한 여행길에 오른다.

그는 부조전래의 남루한 갑주를 몸에 걸치고 늙은 말 로시난테를 잡아타다. 돈키호테는 정의를 사랑하고 이상을 위해서는 자신의 위험도 돌보지 않으며, 오직 이상만을 추구하는 고매한 광인이다. 한편 산초 판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현실을 잊지 않으며, 욕심 많고 겁쟁이인데다가 교활하지만 주인에 대해서는 매우 충실하고 때로는 놀라운 기지로 발휘하는 인물로 그려져 있다. 그리하여 이 소설은 돈키호테의 몽상과 이 세상의 산문적인 현실 사이에 일어나는 충돌 이야기, 해학적인 동시에 본인들에게는 비통한 실패를 연출한다는 것이 전편의 취향으로 되어 있다. 전편은 일화의 연속으로, 그 사이에 문학, 정치, 철학 등에 관한 논의가 끼어든다.

이 작품의 완전한 제명은 '기사가 놀라운 항사 돈키호테 데 라만차' 예요. 전편 (1605년) 52장, 속편(1615년) 74장으로 되어 있어요.

작자가 이 이야기를 쓴 동기는 당시의 스페인 사회에 유행하고 있던 기사 이야기의 인기를 타도하기 위해서였답니다. 사실 이 이야기가 출현했을 무렵에는 기사 이야기의 유행은 상당히 쇠비레고 있었어요. 문학이 창조해 낸 으뜸가는 인물 전형 중의 하나는 돈키호테일 것입니다. 17세기 스페인에서 쓰여 진 <돈키호테>가 시공을 초월해 수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게 된 것은 주인공이 기상천외

문학이 창조한 으뜸가는 인물 현실과 이상간의 충돌 유머로

한 인물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이기 때문일 것예요. 세르반테스는 가장 기상천외한 인물인 돈키호테를 통해 가장 보편적인 인간 본성의 한 단면을 그럴듯하게 묘사해 냈지요. 그래서 돈키호테는 희극적인 뿐만 아니라 동시에 비극적이기도 합니다. 사회적 관습에 어긋나는 가치를 맹목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 미치광이나 어릿광대 같은 희극적 주인공이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 상황에 대한 인간의 실존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보면 비극적 주인공이기도 한 것입니다. 돈키호테의 희비극은 시대착오적 기사소설 편집에서 비롯되죠. 몰락한 하급귀족 출신으로 50

을 넘긴 나이에 중세의 유행인 기사소설 탐독에 미쳐 있던 주인공이 마침내 선대에서 물러받은 녹슨 투구와 갑옷, 낡은 창과 방패로 무장을 갖추고 시대를 거슬러 편력 기사로 나서는 거예요. 출정은 세 번에 걸쳐 이어지죠.

처음 출정은 어느 여름 이른 새벽 이웃들의 눈을 피해 혼자 떠나요. 여기서 돈키호테는 현실과 기사소설 세계를 혼동하며, 멋대로 세상을 상상하고 일방적인 환상에 빠지죠. 한낱 주막 주인이 주관하는 기가서품 의식은 기사소설 세계에 대한 돈키호테의 편견적 도적이 빛어낸 우스꽝스러운 촌극이 아닐 수 없어요. 두 번째 출정에는 우직한 시골 농부 산초를 설득해 종자로 동반하고 나서죠. 여기서 주인과 종자 사이에는 복고적 기사세계의 이상주의와 그것을 부인하는 현실주의가 간단없이 충돌하며 긴장과 유머를 빚어냅니다.

<돈키호테>는 사람들로부터 '인간의 책'이라 불리며, 인간이 가지는 두 가지 경향, 즉 이상적인 일면과 현실적인 일면을 두 사람의 작중 인물을 통하여 표현했어요. 주인공 돈키호테는 기사도에 관한 책을 너무 탐독하여 이상을 잃고 오로지 몽상에 잠겨 모험을 찾고 이상을 추구하죠. 반대로 종자 산초 판사는 매우 현실적이며 겁쟁이인데다가 고지식하며, 대식가인 동시에 상당히 교활한 대가 있기는 하지만 주인에 대하여는 어디까지나 충실합니다.

러시아의 작가 투르게네프는 돈키호테의 성격을 햄릿과 비교하여 돈키호테는 낙천형, 햄릿은 회의형이라고 했어요.

안명옥(시인 · 고령고 문예창작반 강사)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생각' 코너는 사찰 계사판에 올라온 어린이,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은 공간입니다. 불교계에 바라는 점, 입사상담과 교우 문제 등 주제 · 형식을 벗어나 여러분이 직접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접수 e-메일:rolling@paran.com)

새로운 친구 사귀기 두려워요

고등학교예요. 여자구요. 낮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요. 신학기가 시작되던 지 한 달도 넘었는데 적응이 안 돼요. (ID:곰곰이)

할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이 중요

모든 사람들을 처음 만나는 기회나 또 새로운 상황을 접하게 되는 기회가 오면 피하지 말고 그것에 부딪혀 보세요. 문제 상황에 대해 익숙해지는 것이 문제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정작 그 스트레스의 중심으로 뛰어들고 나면, 오히려 그 불안감이나 긴장감을 서서히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조함과 불안감을 참아 내고 일단 그 상황에 뛰어 들어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용기를 내어 그런 상황에 도전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물론 불안감이 느껴질 거예요. 그럴 때마다 속으로 '그만'이라 외치고 "나는 할 수 있다"는 주문을 다섯 번씩 외워주세요. 불안하고 초조한 정서는 그대로 두면 더 깊이 빠져들 수 있으니 그 생각을 차단하고 긍정적인 자기 주술을 거는 거죠. 상황이 부딪힐 용기가 났다면 다음엔 다른 사람들의 인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얼굴에 미소를 짓고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나누는 거죠. 좀 더 발전하면 이번엔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인사를 하는 시도도 해 보세요.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인사를 할까말까 망설이지 말고 눈 딱 감고 인사를 해버리세요. 불안하고 초조해 하며 소극적으로 피하기만 하면 더 두렵고, 직면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좌절감이나 비하감만 더 느껴질 뿐일 거예요. 일단 부딪혀 보고 설명 실수나 실재가 있더라도 다음엔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러기 위해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것이 좋겠지요. '처음부터 잘 하는 사람은 없어', '실수하면 어때', '조금씩 나아질 수 있어'라는 대범한 생각을 가지고 실천해 나가세요. (한국청소년상담원)

공자(子) by 경운도원. 공자의 이름은 구(丘) 8C552~8C479까지 살았습니다. 공자는 석가모니, 예수, 소크라테스와 함께 세계 4대 성인으로 불릴 만큼 중국이 낳은 큰 스승입니다. 공자는 예의가 바르구나. 안중암 이문. 공자는 예의가 바르구나. 안중암 이문. 공자는 예의가 바르구나. 안중암 이문.

산야초 향(香) 외에 7년 숙성향토 달마도량 거창 달마사 뽕안 미백 돌려줘!!! 7년 숙성 아마수 팥도떡 특징 1. 남녀가 함께 사용하는 자연팩 화장품을 제거하여 지금보다 더 노화되지 않고 사는 비결. 2. 청오스님이 직접 만든 수제품 팥물에 갈아 풍구에 날려 물에 양금 제거 후 7년 동안 산야초에 숙성으로 금쪽같은 팥이다. 3. 한정품(대량생산이 아님) 미백과 잔주름 제거에 탁월한 효능. 아마수팩 녹차1통 300g - 3만원 (2통 이상은 팥, 붓, 아마수물, 배송비 무료) 더 좋은 효과를 위하여 차스폰으로 소복하게 2스푼(약간 두껍게 발라 주세요) 구입문의 055)941-1083 010-4595-0017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불제 대원기업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 기업입니다. 장엄용(법당) 전기초 ▶ 화재 위험이 거의 없다. ▶ 그늘음과 납성분의 위험이 있는 일반초와는 달리 무공해임 ▶ 시간 조절 가능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475

전선 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사찰 LED전구(정품) ▶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 법당용, 외곽용 ▶ 할리먼트가 아닌 반도체로 되어 반영구적이다. ▶ 반도체로 되어 화재의 전기소모가 거의없다. ▶ 소켓 AC220V용으로 다용도로 사용 사찰 램프전구(정품) ▶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 종류: 3W, 5W, 10W ▶ 특 할리먼트로 빛이 월등히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안전지침, 방생, 탐침이 행사용 청사초등 및 초등 걸이대 연 등(정품) 법당등(공단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큰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전선 시공